

김도진의 열린 혁신 “닫혀있던 banking서 플랫폼으로”

(기업은행장)

기업은행 창립 58주년

디지털 플랫폼 ‘BOX’ 공개
중소기업 경영활동 전반 지원
고객과 직원의 개별성에 주목

“닫혀있던 banking의 사고에서 벗어나 열려있는 플랫폼의 사고로 대전환 해야 한다.”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1일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열린 ‘창립 58주년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하고 “시대의 변화에 맞춰 중소기업과 서민을 더 깊이 들여다 보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행장은 이날 중소기업 경영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디지털 플랫폼 ‘BOX’를 공개했다.

BOX는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해



김도진 기업은행장이 1일 기업은행 창립 58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정책자금 맞춤 추천 ▲비대면 대출지원 ▲생산 자네트워크 지원 ▲기업부동산 매매 중개 ▲일자리 매칭 등 총 12개 분야의 금융 비금융 솔루션을 제공해 은행과

기업 기업과 기업을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그는 “BOX 통해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과 핵심자산을 중소기업에 공유하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플랫폼의



기업은행이 1일 중소기업 경영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디지털 플랫폼 BOX를 선보였다. /손진영 기자 son@

본보기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중소기업의 모든 성장단계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 혁신 역량도 잃게 되고 일자리도 사라지게 된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동산금융활성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이 IBK 중기대출의 60%를 차지하고 있는만큼 성장까지 함께 책임지겠다는 설명이다.

김 행장은 혁신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선 고객에 대한 관점도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는 핀테크 기업 앱이나 다른 은행에서도 계좌의 돈을 출금할 수 있고 나의 개인정보를 결합한 나만의 맞춤형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며 “은행을 통하지 않고도 자동 결제 신청보다 공과금 납부까지 가능한 시대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평균의 함정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으로 상품과 절차를 단순화하고, 고객과 직원의 개별성에 주목하자”며 “겉껍질 쌓인 복잡성의 무게에 벗어 나지 않고는 고객에 다가설 수 없고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저금리에 보험사 ‘울고’ 카드사 ‘웃고’

보험사 지급부담 커져 역마진 우려
카드사 기준금리 인하 수익성 개선

한국은행이 지난 18일 기준금리를 기존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2금융권 회사들의 명암이 갈리고 있다.

보험사는 자산운용이익률 하락으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 특히 생명보험업계는 고금리 상품 또는 높은 최저보증이율을 제공하는 상품 비중이 높아 보험금 지급 부담이 커지면서 ‘역마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어 보험 가입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카드사에는 금리 인하나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준금리가 인하될 경우 자금조달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올해 2분기 카드사들의 당기순이익은 한 자릿수 감소에 그쳤다.

◆ 보험사, 역마진에 자본확충 부담까지 ‘첨첨산중’

저금리 기조가 본격화되면서 보험업계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우선 금리 인하로 대출채권, 이자수취채권 등에서 자산운용이익률이 낮아진다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 이는 곧 수익성 악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앞으로 저금리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내 보험사들은 고객에게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안정성이 중요한 만큼 주식 등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대부분 국고채, 채권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내고 있다.

저금리 기조로 생명보험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 확정형 상품이나 높은 최저보증이율을 제공하는 상품 비중이 높은 생보사의 경우 금리 역마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생보사들은 90년대 8~9%, 2000년대 5~7%의 고금리 저축성보험 상품을 경쟁적으로 판매했다. 고금리를 적용한

〈5개 신용카드사 상반기 당기순이익〉

구분	2018년	2019년
신한카드	2819	2713
삼성카드	1943	1920
KB국민카드	1686	1461
우리카드	676	665
하나카드	516	337

(단위:억원)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보험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기에 자산운용을 통해 얻는 수익보다 보험금으로 나가는 돈이 더 많은 역마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저축성보험의 경우 계약자에게 최저 수준의 이율을 보장하는 조항까지 있어 역마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미래 예측 손실에 대비해 적립하고 있는 평가성 준비금 적립 부담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LAT(부채적정성평가), 보증준비금 등 평가성 준비금의 경우 금리가 인하되면 할인율이 낮아져 준비금 적립 부담으로 이어진다.

게다가 2022년 도입될 예정인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대비한 책임준비금을 더 늘려야 하기 때문에 자본확충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 카드사, 조달비용 절감으로 수수료 인하 여파 ‘상쇄’

반면 카드사는 금리 인하를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저금리 기조에서는 자금 조달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카드사는 자체 수신 기능이 없어 자금을 차입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국내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카드사들의 조달 비용은 커지지만 반대로 금리가 인하될 경우 조달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

올해 초부터 카드사의 발행금리는 평균 2%대에서 1%대 후반으로 하락한 상황이다. 실제로 삼성카드의 분기별 신규 조달금리는 지난해 2분기 2.46%

에서 올해 2분기 1.99%로 떨어졌다.

저금리 기조에 따른 영향은 올해 2분기 카드사 순이익을 봐도 알 수 있다. 신한·삼성·KB·하나·우리카드 등 5개 신용카드사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총 709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 감소했다.

삼성카드(-1.2%), 신한카드(-3.8%), 우리카드(-1.6%) 등 3곳은 올 상반기 순이익이 소폭 감소했다. 국민카드의 경우 전년 대비 13.3% 감소했지만 지난해에 발생한 캠프 채권매각 등 일회성 이익 300억여원을 제외하면 오히려 5.4% 증가했다. 하나카드만 34.7%로 순이익이 크게 줄었다.

올해 2분기부터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인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수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부분 한 자릿수 감소로 선방했다. 여신금융연구사는 카드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들의 총 순이익이 올해 7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카드사들이 실적 선방을 이룬 배경은 영업비와 판매관리비 등 마케팅 비용을 대폭 줄인 영향도 있지만 저금리 기조에 따라 조달 비용 절감 효과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1일 “카드사는 다른 금융사와 달리 수신 기능이 없어 자금 조달이 중요한데 기준금리 인하가 일부 효과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저금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카드업계에는 호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



예보료 산정방식 개편 돌입 저축은행 부담 줄어 들지 관심

보험약관 대출·예적금담보대출
예보료 납부 대상 제외 방안 거론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예금보험료(이하 예보료) 산정방식을 일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저축은행 업계의 숙원인 예보료 인하의 활로가 뚫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각 금융협회 및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라 보험약관대출과 예적금담보대출을 예보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금융사들은 지난 1998년 전 금융권 소비자를 보호하는 통합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매년 예금자보호를 위한 예보료를 내고 있다. 금융사의 부담을 대비해 예보에 예치해 놓은 보전금으로 5000만원까지는 보상해 소비자 피해를 줄인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부 금융권에서는 예보료 수준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 과도하다는 이유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은 다른 업권에 비해 보험료율이 높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율은 예금잔액의 0.4%로, 은행의 0.08%보다 5배 높다. 이에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취임 이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예보료 인하를 꼽았다.

예적금 담보대출이 예보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저축은행 업계 또한 과도한 예보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SBI·OK·한국투자·웰컴·유진·JT 친저축은행 등 대형 저축은행의 예적금 담보대출 비율은 평균 0.09% 정도다. 총 대출 규모 중 예적금 담보대출의 비중은 적지만 당국과의 소통을 지속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있다는 반응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거론된 개편안이 저축은행 업계의 영업에 크게 영향을 줄만큼 혁신적인 것은 아니지만 금융당국과 소통을 지속하고 당국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준다는 점에서 이번 논의는 중요하다”며 “예보료 개편에 대한 첫 단추가 잘 끼워진 후 기조가 유지된다면 향후 또 다른 규제도 완화되며 실질적으로 업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편안이 실현된다면 저축은행의 수신상품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예적금 담보대출을 추천하기 수월해진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예적금담보대출의 비중이 적긴 하지만 예보료 납부 대상에서 예적금 담보대출이 제외된다면 저축은행의 예적금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이에 대한 담보대출을 권유하는 데 대한 부담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

